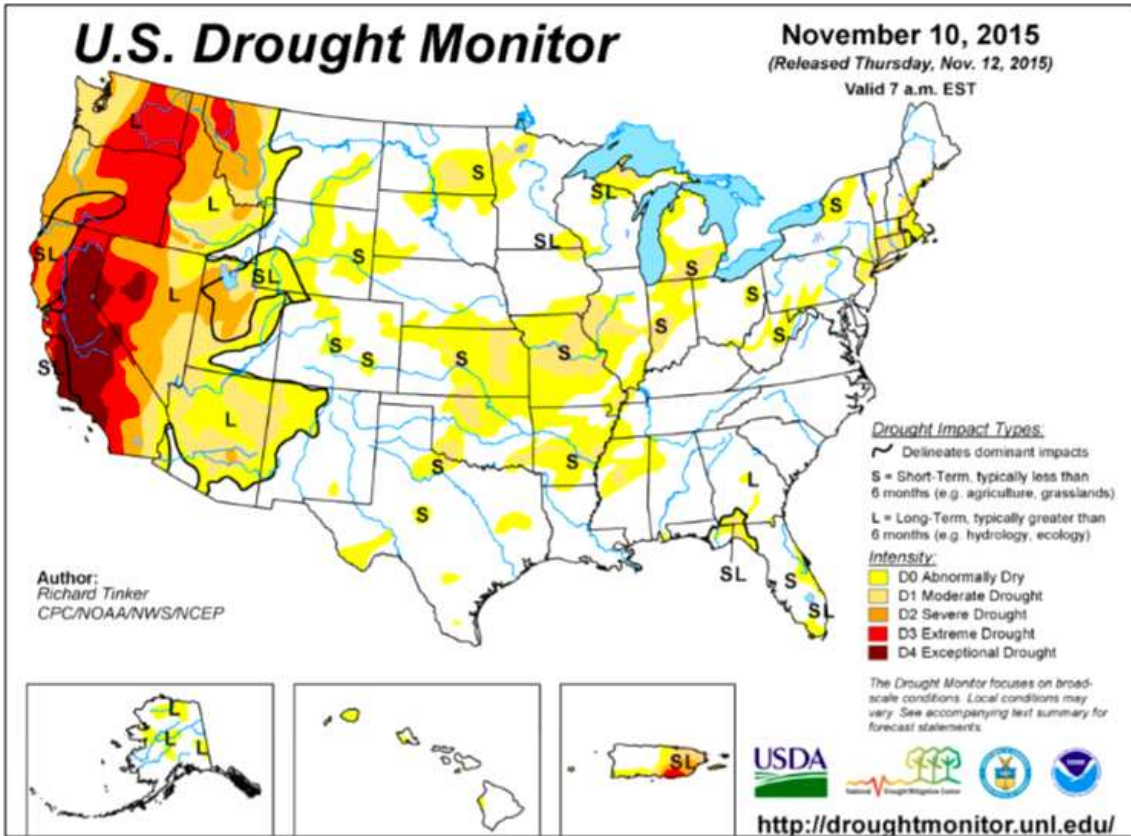


11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6)

□ 미국 기후 현황(11/08~11/14)



남동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 면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서부에서도 비가 내려 수확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아이오와 서부와 미시간에서 펜실베이니아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아이오와 남부와 그 일대에서는 11월 11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태평양 중부와 중서부, 북동부 일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하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중부지역에서는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북동부 일대와 오대호 일대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는데, 특히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었고, 씨에라 네바다 남부 일대에서도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남서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5°F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11/09~11/15)

한주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다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내륙산간의 중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작업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주에서 강우량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대서양 연안과 중서부 일부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워싱턴 서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5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 옥수수

11월 15일 기준 전국 옥수수 수확률은 96%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2%p 앞서고 있다. 지난 한주간 콜로라도, 위스콘신, 미시간의 수확작업 진행률은 각각 14%, 11%, 10%였다.

■ 겨울밀

11월 15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94%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4%p 뒤쳐진 상황이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 발아율은 87%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 앞선 상황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8%p 낮은 수준이다.

■ 면화

11월 15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낮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0%p 뒤쳐진 수준이다.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을 기록했다.

■ 기타작물

11월 15일 기준 땅콩 수확률은 92%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1%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12%p 낮은 상황이다. 모든 주에서 수확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알라바마와 플로리다에서는 이번 한주에도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88%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앞서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11/08~11/15)

- 유럽: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그밖의 유럽 전역에서는 맑은 날을 보였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는 평년보다 5~9°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맑은 날씨와 따뜻한 기온 덕분에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방의 경우 평년보다 기온이 5°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어 종자의 휴면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북부의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북동부 등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50mm의 비가 내렸다. 폴란드 등에서 내린 비는 겨울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어 겨울작물도 휴면기에 돌입하지 않고 생육을 지속하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부에서는 비가 내려 가뭄에 말랐던 대지를 적셨고, 러시아 남부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 덕분에 겨울밀의 생육상황이 좋은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에서는 가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난 7일 동안 10~30mm의 비가 내렸다. 현재까지는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러시아 중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졌다. 러시아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2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 전역에서는 50~200mm의 비가 내렸다.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고, 서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평균기온은 10~15°C 정도를 유지했다. 중국 북동부 평원지역에서는 지난주 비가 내린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겨울밀 생육상황이 좋은 편이다.
- 호주: 서부와 남부, 빅토리아 북부 등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겨울밀과 보리 등의 생육상황도 좋은 편이다. 빅토리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물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여름작물 파종작업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겨울작물 수확작업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남부와 서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2~4°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북부, Cordoba, Santa Fe 남부 등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30°C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Santa Fe의 면화 재배지역, Chaco 동부, Formosa 동부 등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의 Salta, Santiago del Estero 등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졌다. 동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고, Santiago del Estero 북동부와, Chaco,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1월 12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62%이며 옥수수

파종률은 40%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의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Parana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브라질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 지역에서는 밀 수확률이 80%를 기록하고 있고, 옥수수과 대두 수확률은 각각 80%, 20%였다. Minas Gerais 남부 등 커피 재배지역에서도 25~50mm의 비가 내렸고, Sao Paulo에서는 10~25mm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 중서부의 대두 재배지역에서도 25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Bahia 서부, Tocantins, Piaui, Maranhao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중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2~5°C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낮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40°C까지 올랐다.